

보도

수강신청 직전 폐강공지 논란 ... 학생 불만 끊이질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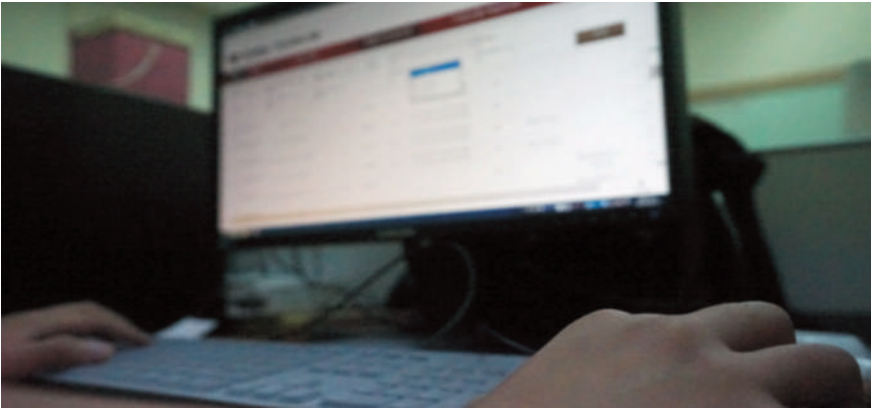
강좌변경 공지 논란

최병현 기자 kyoona@khu.ac.kr

#. 경영대학 1학년으로 재학 중인 A군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경영대학 측의 사정으로 전공시간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바람에 원하던 교양 과목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전공시간표가 여러 번 수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A군은 “강좌 시간 변경으로 시간표가 밀리는 바람에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게 돼 수강신청 정정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경영대학은 매 학기 신입생의 편의를 위해 1학년을 4개의 반으로 나눠 전공 수업을 배정한다. 경영대학은 지난 7월 20일 1학년 전공시간표를 공지했다. 이후 2차 희망과목 담기 첫날인 7월 22일, 최초 공지한 전공시간표가 변경됐다. 경영대학은 안내 문자를 통해 시간표 변경 사실을 공지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시간표를 다시 짜야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7월 23일, 경영대 2반의 <경영커뮤니케이션> 강좌 시간이 재변경되



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 7월 22일자 공지 게시글의 첨부문서가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 시간표\_수정20150723’으로 변경되었을 뿐,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나 안내문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22일에 시간표 변경 사실을 확인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표 재변경 사실을 모른 채 2차 희망과목 담기를 마쳤고,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학생들은 시간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희망과목 담기 기간이 지나 수강신청일에 ‘학수코드 직접 입력’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경영대학 측은 “학생들의 수강권을 보

장하려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 당시 담당자의 외근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요한 수강신청에 피해를 끼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미숙한 공지로 피해를 봤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시간표 공지시기를 앞당기고, 정정 기간 때 여석을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영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강신청 직전 폐강을 하거나 강좌 시간표나 교강사가 변경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확한 공지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강좌 시간 변경을 신속하게 전해야

할 수강신청 홈페이지의 ‘강의시간표 변경 공지’에는 2015년 8월 31일 현재 생활과학 대학의 2개 강좌의 시간 변경과 한의과대학 2개 강좌의 교강사 변경 안내만 올라와 있다. 이마저도 2차 희망과목 담기가 종료된 이후였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수강신청 전 폐강되는 강좌에 대한 공지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는 ‘강좌 폐강이나 시간 변경 공지는 각 단과대학이 관리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는 단과대학 측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폐강공지는 수강신청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캠퍼스 1차 폐강강좌 공고’의 내용에 따르면, 희망과목담기 기간과 실제 수강신청기간 사이에 변경된 내역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과대학은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하기에 따라 목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로써는 변경된 강의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취재 결과 ‘경영커뮤니케이션’ 강좌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 강좌 그리고 문과대학의 ‘영미산문연구’ 강좌 또한 시간이 변경된 것

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강인원 미달기준(전공교과목 15명, 교양 및 기타교과목 20명 미만)에 부합하는 정당한 폐강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어학부에 재학 중인 B양은 “수강신청 전날에 갑작스레 강좌 시간이 변경되어 당황했다”며 “공지를 조금만 일찍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측은 “수강신청 전에 폐강된 과목은 문자안내를 하기에 따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께 2차 희망과목 담기 이후에는 폐강이나 시간표 변경을 자제해달라고 끊임없이 부탁하고 있다”며 “간혹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예비과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사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담기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성무건(경영학 2015) 군은 “변동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학교측이 이를 회피하는 것 같다”며 “일방적 통보 식의 학사행정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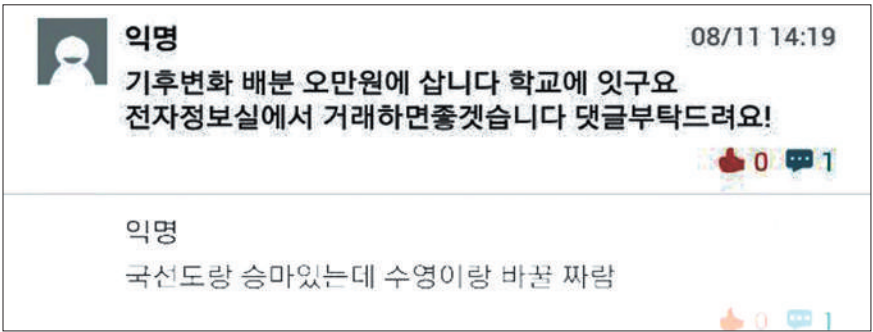
“OO강의 삽니다”, “OO강의 팝니다” - 강의를 삽니다?

계속되는 강의매매 문제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학점이 취직과 연결되는 사회적 풍토에서 학점을 잘 주기로 소문난 강의에 수요가 집중돼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구매하는 ‘강의 매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의 매매’는 방학 중 시행되는 수강신청 해당일과 개강 후 일주일의 정정기간에 발생한다. ‘강의 매매’는 시간표를 짜고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주로 성사되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강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게시글을 등록해 접촉한다. 수강권을 사고 파는 학생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직접 만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를 통해 ‘수강권 이전’의 대가를 치른다. 비용의 지불이 끝나면 강의 판매자는 수강



신청내역에서 해당 과목을 삭제하고, 강의 구매자는 해당 과목에 여석이 생기는 즉시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3학년 A씨는 “3만원에 전공 강의를 산 경험이 있다”며 “원하는 시간대의 수업이었고, 학점이 후하다는 정보를 듣고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기간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강인원 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차라리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강의를 매매 하는 주요 원인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수강신청의 제도적 맹점에 있다. 인기 있는 강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강신청 당일 많은 학생이 동시에 신청한다. 하지만 정원은 제한되어 있고 신청에 성공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분이다. 실제로 경영학과와 한 인기교수가 맡은 전공필수 강의는 정원이 80명인데 비해 희망과목담기 신청자 수는 500여명에 육박했다. 특히 경영학과는 기존의

재학생과 복수전공자, 전과생을 고려하면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인기 강좌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강의 매매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동열(경영학 2012) 군은 “이미 등록금을 냈는데 왜 또 강의를 사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강의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매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권혁(경영학 2012) 군은 “강의매매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수강신청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의 매매 현상과 같은 수강신청의 폐단을 막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Y-CES(Yonsei Course Enrollment System)’라는 새로운 수강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수강신청 당일 학생들에게는 수강 가능학점의 4배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학생들은 신청한 강의마다 마일리지의 양을 자율적으로 분배하여 강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른 학생들의 마일리지 사용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마일리지를 입력한 학생 순으로 수강인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강신청 제도를 도박에 빗대어 ‘연세 카지노’, ‘연세 토트’ 등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만, 가장 듣고 싶은 강의에 마일리지를 더 많이 투자할수록 수강신청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강의 매매 현상에 대해 학사지원과 측은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학생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매매를 하지 말라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